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1월 5일(주일) 제1170호



지난 3월 Point5공동체에서 진행한 선교마라톤. 달린만큼 후원금을 모아 여름사역에 사용했다.

다음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2018 차세대 교사 모집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다음세대 응원단(교사)을 찾는다. 오늘(5일)까지 '2018 차세대 교사 모집행사'가 실시된다. 다음세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길 원하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빙고, 양재, 인천, 도곡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홍보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11월 중에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차세대 교사는 최소 576명(서빙고 103명, 양재 83명, 도곡 32명, 부천 105명, 수원 56명, 대전 59명, 남양주 41명, 인천 38명, 강동 26명, 평택 18명, 양지 15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 교사는 최소 85명(서빙고 40명, 양재 15명, 강동 15명, 부천 15명)이 필요하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한 성도들은 신입교사 사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입교사 사명교육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8주 동안의 훈련과정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개 및 영역 소개,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등이 실시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사랑부 02-3215-3268

이웃과 손잡고 달린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 11월 11일 오전 9시
5km 걷기, 5km 달리기, 10km 달리기, 후원 중 선택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손잡고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11월 11일(토)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대상이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 접속해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오늘(5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에서 나눠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종목(5km 걷기, 5km 달리기, 10km 달리기 중 택 1), 캠퍼스, 공동체, 입금자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행사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참가비는 전 종목 1만원이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대회 참가가 어려운 성도들은 후원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다. 마라톤

참가비 및 후원비는 산마루교회 노숙인 목욕빨래방과 자활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된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은 11월(토)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 골프장에서 예배와 개회사를 하고, 동작대교 북단광장 자전거유계소로 이동해서 마라톤 대회를 시작한다. 한강대교 아래 공터, 마포대교를 지나 마포나루터에서 반환점을 돌아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다. 마라톤 참가자들에게는 기록증, 완주 메달, 기념품이 증정된다.

온누리교회와 노숙자들을 섬기는 산마루교회는 지난해 1월부터 동역하고 있다. 시설 마련을 위한 헌금 전달, 저녁식사 섬김, 목욕탕시설 마련을 위한 음악회 후원, 서울역 광장 청소 등을 함께 섬기고 있다.

문의: 02-3215-372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노숙인 목욕 빨래방 및 자활공동체 세우기



2017.11.11(토)
한강시민공원
오전 9:00-13:00

• 대상: 노숙인을 사랑하는 모든 사명들
• 후원: 해나은행 573-910008-31704 (계금주:온누리교회) • 참가비: 1만원
• 신청: 신청서 제출 및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http://www.onnuri.org) 배너 클릭 후 등록
• 문의: Tel 02-3215-3726

산마루교회 Onnuri

오늘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오늘(5일)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2003년 남양주공동체 성도들의 새벽기도처로 시작해서 2004년 11월 7일 정식캠퍼스로 발돋움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차세대 양육을 탁월하게 잘 하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남양주 진접으로 예배처소를 이전해서 경기 북동부 지역을 넘어 강원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탈북민까지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선교세미나 '성경, 개혁, 선교'

내일(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한국로잔위원회가 주최하는 종교 500주년 기념 선교세미나가 드디어 내일(6일) 막 오른다. '성경, 개혁, 선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렐햄파트너십인터내셔널 국제 대표)가 강의를 한다. 대상은 목회자, 교회 리더십, 신학생이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회

비는 1만 5천원(신학생 5천원)이다.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시작됐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적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비전이다. 올해 1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국로잔위원회 신임 의장으로 추대됐다.

문의: 02-570-7553

내가 만난 하나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여기 하나님을 만나 참 자유와 평강을 되찾은 성도가 있다. 주인공은 나고야 온누리교회 무라타 아키코 성도다. 그녀는 사는 게 저주 같았다. 웃을 일도, 행복한 기억도 없었다. 참혹하게 불우했던 유년기를 보낸 것도 서러운데 첫 번째 결혼생활마저 비극이었다. 그녀의 딸도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 편집자 주

1955년 어느 추운 날, 초록대문이 있는 집 앞에 얇은 포대기로 싸맨 갓난아기가 버려졌다. 집 주인은 버려진 아기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했다. 그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한 사람이 그 아기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그 일이 나와 엄마의 첫 만남이다. 엄마는 그때 나를 보고 “많이 말랐지만 참 예뻐다”고 회상하셨다. 그런데 생일도, 이름도 없었다고 한다. 그 어디에도 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내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15살 때 알게 되었다. 동네에 살던 엄마 친구가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줬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엄마에게 곧장 달려갔다. 엄마가 거짓말이라고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나에게 오히려 화를 내셨다. 너무 슬펐다. 나한테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데, 누구에게나 있는 엄마인데,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니... 나는 큰 슬픔에 빠졌고 그때부터 죽음을 꿈꾸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갔다.

집안 사정마저 어려워져서 나이가 어렸지만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다. 조금이라도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엄마 친구가 “남의 새끼는 키워봐야 소용 없다”는 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판다. 15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주 받

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저주와 죽음을 생각하는 날만 늘어갔다.

18살 때 나는 한국으로 여행 온 한 일본인을 만나게 되었다. 내게 결혼하자고 말하는 그에게 엄마와 나를 같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우리는 일본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딸과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행복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조금씩 갈등이 생겼고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남편을 피해서 엄마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한국 중학교 중퇴 학벌인 내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카페에서 그릇 씻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아들의 대학입학과 딸의 결혼식이 정해졌을 때였다. 잘 진행될 줄 알았던 딸의 결혼이 파탄 났다. 딸은 그 일로 마음의 병을 얻었다. 딸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게 하나님이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지금의 남편이다. 남편과 새 삶을 시작한 기쁨도 잠시, 딸의 증세가 날로 심각해졌다. 몇 번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탈진해 있는 나에게 남편은 한국에 가서 쉬다 오라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만난 무라타 아키코 성도.

제안했다.

나에게 한국 방문은 정말 필요한 선물이었다. 한국에 가면 많이 웃고 조금이나마 기뻐다. 남편도 조금씩 밝아지는 나를 보고 함께 기뻐했다. 그때 조카가 나를 교회로 초대했다. 자신의 소원이라며 교회에 가자는 조카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난생처음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간 첫날, 딱딱한 돌 같은 내 마음을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셨다. “이 좋은 교회를 왜 그동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다음 주일만 기다리게 되었다.

성경도, 교회도 몰랐던 나는 온누리교회에 다니면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뻐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어느 구절을 읽어도 눈물이 났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셨다. 어린 시절부터 ‘내 삶은 저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 딸의 아픔과 구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아파하는 나를 찾아와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감사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입술이 쉬지 않도록 찬양할 것이다.

기고

이호수
(SK텔레콤 사장,
강남C공동체)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촉발되는 여러 변화를 고려해볼 때 교회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고 판단된다. 교회는 일반 사회 조직과 달리 비영리 기관이고,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변화의 형태와 속도가 일반 사회조직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회 자체보다는 교회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조직(가족,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변화가 매우 빠르고 깊기 때문에 결국 교회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 예가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등 Z 혹은 Y(밀레니얼) 세대대에서 볼 수 있는 변화이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그들은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며,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그들은 각자 개

성이 뚜렷하며 개방과 공유, 협업에 익숙하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신기술과 결합되면 시너지효과를 내서 교회 운영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메시지 전달 방법, 교육 스타일, 선교 방법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요즘은 각자 개성대로 하는 활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계와 소통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일상인 것도 그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대중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포용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새로운 IT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과 사회의 변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빠른 속도의 변화로 인해 미래가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미래학자와 전문가들은 20~30년 내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크리스천 IT인의 사명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역할에 대해서 그럴듯한 상상이나 억측으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우리가 미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 편향되고 과장된 상상으로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크리스천 IT인들이 깨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IT는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께매어 연결시키고 동작하게 할 책임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배울 것도 많고 부지런해야 하며,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IT 전문가들이 공헌할 부분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확신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두려움을 주는 대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크리스천 IT인들은 하나님이 일자리에 파견한 선교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기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자기 주위에 높은 담을 쌓고 협력이나 배려에 인색한 경향이 그것이다. IT산업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IT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로 동료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일터에서 IT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지식을 열심히 연마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하고 겸손한 IT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IT인들은 기술에 대한 감각과 경험이 남다르므로 복음 전파에 IT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책임도 있다.

‘로그온’ 행사

크리스천 IT인들의 영성회복과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예배포럼
일정: 11월 18일 오후 12시, 양재 기쁨홀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 IT업계 종사자
신청: www.elogon.net
문의: 02-3215-3237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전서 4:1-11

“나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더욱 깊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십시오.”

역사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느꼈습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AD 32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자유가 선포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 같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 교회가 어두운 시대였던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것을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에서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상에서의 삶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에 투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예수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남은 때가 더 많다면 이 질문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1~2절).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파괴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욕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

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은 고난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정말 억울한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은 그 선택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고난 앞에 서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두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선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힘이자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로 인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3~5절).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6가지가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가증한 우상숭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한 가지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돌아섰다면 더 이상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은 불필요합니다.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안 그랬잖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엡 1:16~17).

세월을 아껴야 하는 까닭은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한 시간, 인생의 남은 때, 제한된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조바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방탕하고 방임하게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하려는 성취욕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남은 때, 제한된 시간을 사탄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때에 시간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하게 분주하고 바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욕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을 때 받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아쉬움이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30대 초반에 부르신다면 참 아쉬운 인생입니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2~3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때입니다. 그분께는 분주함도 없었고, 당황함도 없었고, 때로는 어떤 고난도 그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는데 정작 먼저 해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C.S. 루이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 있는 기도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는 고난 앞에 서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13면에 계속>

기획_행복 시리즈 3탄 **쉽(여가)과 행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한민국은 ‘과로사회’ 직장인 10명 중 7명꼴 과로 호소 진정한 휴식처는 예수님의 품 … 주 안에서 새 힘 얻어야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재독철학자 한병철이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한 말이다. 한국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산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긴 나라이다. 40대 과로사 1위, 자살률 1위, 40대 돌연사 비율 세계 수위라는 불명예를 괜히 얻은 것이 아니다.

한 일간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꼴로 ‘일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만 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잘 쉬어야 행복하고 일도 할 수 있다. 잘 쉬는 것이 곧 성경적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고찰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전 10:18).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10).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일까.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한가하게 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제대로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다. 쉬 없이 일하다 탈진하고 과로사하면 피해자만 손해다.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고, 음악에도 쉽표가 있듯이 사람에게 쉬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아와 예수님의 ‘쉬’

엘리아는 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엘리아는 혼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용사였지만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이었다. 엘리아는 비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람을 보낸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아는 겁이 난 나머지 단숨에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다. 850:1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의 위

대한 영적 선지자도 피로와 탈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여호와여 너의 하소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 시읍소서”(왕상 19:4).

로렘나무 아래 앉아 자포자기한 채 죽기를 소원하는 엘리아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천사를 보내 쉬게 하셨다. 하나님은 주신 쉬를 통해 새 힘을 얻은 엘리아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만약 엘리아에게 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지만 휴식 시간을 꼭 지켰다.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면 산이나 들로 가서서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쉬와 재충전을 하셨다(눅 5:16).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갔을 때에는 풍량이 닳았는데도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폭 주무셨다(마 8:24~26).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권한 것은 조용한 곳에서의 쉬이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막 6:30~32).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갈릴

리 전역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들이 한 사역을 낱알이 고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명하셨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위대한 엘리아 선지자도 쉬를 통해 영육의 탈진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쉬는 시간을 따로 둘 정도로 쉬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통 쉬 줄을 모른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쉬어봤어야 제대로 쉬 수 있는데 쉬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죽하면 이런 노랫말이 다 있을까.

창밖을 보니 벌써 하루가 지나가네
시간은 참 빨리도 흐르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보내려 했는데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모습에

멍하니 시간이 흘러가는 게 두려워
내 마음은 자꾸만 먼 곳을 달려가네
이대로도 괜찮다고 되뇌어도
자꾸만 내 맘은 멈출 줄을 모르네
난 가만히 있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아
(김동우 ‘쉬는 법을 잊었네’)

일중독에 걸려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현대인의 짙한 속내가 잘 나타나 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웃어주지 못한다면,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바로 그때가 쉬 때이다(〈좋은생각〉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렇다면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 유희로 밤을 샌다거나, 유명 휴양지로 여행가는 것은 쉬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증명하는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조사도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91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후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름휴가 후유증을 겪고 있나?’라는 질문에 73.6%가 “잘 쉬고 출근했는데 일하기 너무 힘들다”고 응답했다. “잘 쉬었더니 일이 더 잘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4%에 그쳤다. 후유증 증상(복수 응답)으로는 무기력감과 업무의욕 상실(53.6%), 피로감과 체력부진(47.3%), 수면장애(14.3%), 식욕부진(6.1%), 두통 및 감기몸살(4.9%) 등의 순이었다.

긴 연휴 동안 잘 놀고, 잘 쉬다 왔는데 왜 후유증이 남는 걸까. 왜 더 무기력하고 피곤한 걸까. 진정한 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필립 드 샹파뉴 '엘리아의 꿈' (1660년 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 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29-31).

쉬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쉬와 더불어 영적인 재충전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를 누리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진정한 휴식처는 예수님의 품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짊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쉬,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적 쉬야말로 참된 쉬이요, 크리스천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기훈 목사가 제안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여가

현대인들은 마치 전투를 하듯이 쉬를 찾는다. 각종 인터넷과 미디어가 쏟아내는 수많은 여행상품들을 보면서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나도 한 번 가볼까,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놀다 올 고민만 한다. 교통체증과 바가지요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산과 계곡, 바다에 가서 쉬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쉬는 것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휴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여가를 보내야 한다. 육의 휴식뿐만 아니라 영적 휴식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기훈 목사가 제안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여가를 눈여겨보자.

약속의 땅으로 '성지순례'

성경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땅을 다녀오고 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가 보지 않고 읽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해의 정도나 깊이, 묵상의 깊이가 다르다.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 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통과해야 했던 사막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흉내 내며 기도해 볼 수도 있다. 우기가 아닌데 구름 한 조각으로 소낙비가 내리는 기적을 일으킨 엘리

야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발자취도 따라가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에서 왜 돌이 체벌도 구로 쓰였는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더워 낮잠을 자는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야곱의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었을 수가성 여인의 비참함,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을 예수님의 마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갈릴리호수 등 가보지 않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해외여행을 간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성경이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큰 영감이 떠오를 것이다.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커질 것이다.

숨어있는 재능 개발

한국인이 선진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이 있다. 바로 취미생활이다. 한국 사람들은 일이 삶의 전부이다. 일을 위해서라면 건강과 가족도 희생한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자녀가 아니라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지만 인간은 일만 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

에 시작해야 한다. 기타, 색소폰, 플루트 등 좋아하는 악기를 배우거나 미술, 붓글씨 등도 좋다. 무엇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인생을 십년은 젊게 만들어 준다. 삶의 의미도 새롭게 해준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재능을 그냥 썩혀서는 안 된다. 지금 꼬집어내서 빛을 보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삶의 활력소이자 행복이다.

다윗처럼 시편(詩篇)쓰기

시인은 특정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시인이 될 수 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났던 혹은 만나게 되는 사건에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시가 된다. 자신의 생각을 느낀 그대로 종이 위에 쓰면 그것이 시다.

시편은 다윗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인이자 누구든지 시편 기자가 될 수 있다. 다윗은 정식으로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다. 시 쓰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했다. 목자생활에서 체험했던 다양한 영적 경험들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바로 시편이다.

살면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아픔, 계절의 변화에서 느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줄서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 이름으로 오행시를 쓰기 등 주제는 다양하다. 글로 하나님 하신 일을 기록하는 것은 찬양을 부르

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이 표현한 한 문장 한 단어를 세심하게 읽으실 것이다.

기념일에 의미 있는 일하기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일, 결혼기념일, 입학과 졸업, 합격과 진급, 세례와 임직 등이 기념일이다. 주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파티를 한다. 기념일을 보내는 보편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돈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도 좋고, 전시회나 음악회에 가는 것도 좋다. 아마 가족들과 함께 감상한 작품은 평생 동안 기억될 것이다. 봉사나 나눔 활동을 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색다른 기념일을 보낼 수 있다.

사람은 의미에 살고 의미에 죽는 존재이다. 좋은 의미를 찾는 것은 삶의 가치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의욕도 높인다. 쉬와 영성을 채우는 쉬를 누리는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크리스천은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어머니의 기도는 강하다

차세대, 대학청년, 군 입대 자녀 위한 기도모임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도 없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루도 쉴 수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뉴스만 틀면 쏟아져 나오는 사건사고, 자녀들의 진로고민과 선택, 신앙문제 등 부모들은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교회를 떠나는 대학청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대학캠퍼스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다. 바로 기도다. 내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가 해답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군선교와 군 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이 그것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기도하지 않고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조현경 성도(서초C공동체)는 14년 동안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를 지키고 있다. 그만한 사연이 있다. 2004년 그녀의 아들 박예찬(22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아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아들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에 참석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아들의 건강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 자

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배웠다.

“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던 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는 1996년 10월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가 모태다. 수학생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기도회가 시작됐다. 그해 수학생력 시험이 끝나고도 기도모임은 계속 되었다. 시험 결과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이 그렇게 탄생했고, 1997

년 2월 5일부터 지금까지 21년째 이어오고 있다.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는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층 누리홀,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린다. 자녀와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내일(6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15일)까지는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가 시작된다.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누리홀과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평일에만 진행된다. 수학생력시험일인 11월 16일(목)에는 양재 사랑홀에서 ‘수능은종일기도회’가 진행된다. 이날 기도회는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청년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모임

대학생과 청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기도모임도 있다. 대학청년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청년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이 그것이다. 취업, 결혼 등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과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머니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제목은 대학청년들의 신앙문제다.

김기행 권사는 “요즘 교회를 떠나는 대학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어머니들의 기도로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면했다.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기도모임	시간 및 장소	문의
서빙고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매주 목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4층 누리홀	02-3215-3521
양재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매주 목 오전 10시 30분 양재 지하 3층 JDS홀	02-570-7436
서빙고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 오전 10시 서빙고 본관 B102호	010-8562-2133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매주 화 오전 10시 양재 경찬홀	010-3285-1726
군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매주 화 오후 7시 서빙고 선교관 101호	02-3215-3214

대학청년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에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도 대학청년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이 시작됐다. 이 기도모임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B102호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대학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참석할 수 있다.

군 입대 자녀 위한 기도모임

군대에 입대한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도 있다. ‘군선교와 군 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임성국, 이유자 성도 부부는 지난해 첫째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 첫째 아들이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였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군선교와 군 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았다. 지금은 둘째 아들이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다.

“기도하면서 중심을 하나님께 두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군선교와 군 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은 2004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강찬석 장로(서대문공동체)가 열악한 군교회를 방문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이 기도모임에서는 군대에 입대한 자녀와 군교회와 군 복음화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진행된다.

엄마가 대학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엄마는 매주 금요일 아침이 가장 기분이 좋고 기쁘다. 너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늘 한결음이 달려가게 된다. 여느 부모님처럼 나 또한 자녀를 기르면서 기도하는 한 어머니란다.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이 너희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기도모임에 가면 각 공동체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대학청년들의 기도제목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고 있단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마음 다해 부르짖을 수 있기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회를 찾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하셨단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내 가슴에 담아주셨단다. 내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부모님과 친구의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를 다니던 너희들이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다. 20대 청춘 시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만나기를 바란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너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삶의 참 주인을 만나기를 기도한다.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결코 멸망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도 좌절과 절망, 낙심

한 마음으로 얼룩진 때가 있었다.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아주시고, 업으셔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대학청년들아, 끝까지 않을 것 같은 고비마다 너희를 응원하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너희들을 위한 기도모임에는 방학이 없단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소망으로 너희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엄마들을 기억해 주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진심으로 너희를 응원하고 사랑한다.



이희인 성도
(신용산공동체)

병원선교 현장

가망 없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

이재성 형제와 부모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믿음



사경을 헤매던 이재성 형제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건강하게 군에 입대한 아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고열로 장기가 녹아서 며칠 살지 못 할 거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는 또 어땠을까.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김정숙 목사가 병원사역 현장에서 만난 이재성 형제의 사연이다.

/ 편집자 주

2008년 여름, 나는 한 부모의 간절한 기다림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아들이 소생할 수 없다는 진단을 들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을 거다. 아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 부모의 간절함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아들의 사고 ... “가망 없습니다”

그 부모의 아들은 2008년 8월 가장 더운 날 40kg이나 되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고 있었다. 설사를 해서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훈련에 임했다. 그 아들은 다른 병사들보다 조금 늦게 입대를 했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훈련에 빠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임했는데 숨 막히는 더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병명은 열사병이었다.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그 정도 열사병을 앓고 살아남은 경우가 없었을 정도다. 의료진은 3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다. 아들을 놓칠 수 없는 부모는 매일 아침 삼성병원 기독교실에 와서 울부짖으며 아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당시 그 부모님은 1분 1초를 건디는 것도 힘들어보였다.

어느 날, 일찍 출근해서 암센터 기도실을 다녀오느라 내가 병원에서 입는 흰 가운을 의자 위에 벗어 놓았다. 내가 다시 자리에 돌아와 보니 그 부모가 내가 벗어놓은 가운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던 여인의 심정으로 목사님이 벗어놓은 가운을 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

고 싶은 심정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재성 형제의 상태는 매일같이 나빠졌다.

“체온이 42도가 넘어서 간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신장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재성 형제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했다.

“하나님, 재성이의 장기가 녹고 있습니다. 재생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과 신장이 재생될지어다.”

내가 선포할 때마다 부모님은 곁에서 “아멘”이라고 소리쳤다.

절망과 희망 사이

이재성 형제의 부모님은 탁구공처럼 절망(의사)과 희망(목사)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의료진으로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오면 나는 희망의 빛을 선포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세워가고 있었다. 이재성 형제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위로 받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왔다.

이재성 형제는 완전히 혼수상태였다.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했고,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었다. 이재성 형제의 눈동자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21일이 지났다. 기적 같이 이재성 형제의 의식이 미미하게 돌아왔다. 하지만 장기손상은 점점 심해져 갔고, 간수치가 1만을 넘어 가고 있었다. 신경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가망 없다는 절망적인 말을 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의료진의 진단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부모님을 격려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찬양하고 말씀으로 환우들과 보호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뿐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었다. 이재성 형제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고, 그 부모의 절박한 신음소리를 하나님도 듣고 계셨다. 하나님은 계속 나와 그 부모에게 이재성 형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다.

믿음이 기적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재성 형제의 장기가 조금씩 소생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목사님, 간이랑 신장이 소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도 살아나고요.”

나는 이재성 형제가 더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선언했다. 놀랍게도 3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던 진단과 달리 한 달 후 이재성 형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때도 의료진은 “그래도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니죠?”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울면서 달려왔고, 나는 “진단은 상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자”고 위로했다.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다. 이재성 형제의 의식이 또렷해졌다. 흐리던 눈빛도 맑아져 갔다. 내가 병실에 방문할 때마다 있는

힘 다해 “모오옥사아아니이임”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그런데 재활과 교수님으로부터 또 한 번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앞으로 한 발짝도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성 형제의 어머니는 매일 저녁 10시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했다.

이재성 형제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병원을 전전하면서 재활치료를 했다.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재성 형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고 있었다. 휠체어에서, 침상에서, 복도 의자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 기도가 일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에 생기를 넣어 주시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참으로 기쁜 날

고난의 행군 속에서 참으로 기쁜 날이 왔다. 이재성 형제가 2013년 국가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면접을 본다면 온 가족이 서울에 온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잘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나는 부담 없이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좁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을 먹고, 이재성 형제의 얼굴에 크림도 발라 주고, 머리에 무스를 발라 멋지게 꾸민 다음 양복을 입혔더니 정말 근사한 청년이었다. 비록 지금은 걸을 수 없지만 잠시 동안 서 있을 수 있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면접을 보고 나온 이재성 형제의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고 며칠 후에 합격 소식을 들었다. 지난 수년 동안의 고통이 썰물처럼 사라졌다. 역경 속에서의 수고와 노력이 큰 선물이 되었다.

이재성 형제 가족이 경험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휠체어에 몸을 싣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아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감사와 아픔이 교차할 것이다. 이제 이재성 형제의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고 있다.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였으니 이재성 형제는 온전한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벗어나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을 때 곁에 계셔 주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뛰어 넘어 함께 웃으며 하루를 열어가는 이재성 형제의 가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깨달았다.

김정숙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삼성서울병원 원목)

특별기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III)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젠더 이데올로기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모든 남녀의 성적 동일성을 주장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사종교(eine Quasi-Religion)의 성격을 가지고 ‘일부일체제’라는 결혼 제도에 대하여, 레즈비안적(Lesbian), 게이적(Gay), 양성애적(Bisexual), 성전환적(Transgender), 퀴어적(Queer), 혼음적 형태를 ‘성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괴기한 생활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더불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혁명이었고, 볼셰비키 혁명이 사회적 경제체제에 대한 혁명이었다면, 성 차별 철폐운동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性)의 질서, 결혼, 가정이라는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문화인류학적 혁명(cultural anthropological revolution)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음 여섯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생물학적 성(性)의 부정과 해체

자연법에 의하면 “혼인과 결혼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양성이란 당연히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두 성은 태초에 창조주께서 세우신 신성한 질서이다. 따라서 이 두 성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자 국가의 근간이다. 성 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관습인 인류의 수천 년의 전통을 부정하고자 한다. 이 운동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호 성적 끌림이 인류의 과거, 현재와 미래적 삶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근본적 진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남자와 여자에게 천성적으로 주어진 상호적인 성적 이원성이라는 천부적 본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후손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가정은 해체된다. 가정이 파괴된 사회에서 우리 후손 세대도 사라지게 된다.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출생해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국가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특히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적 위기가 된 오늘날 한국의 상황



벤젤 피터가 그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태초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兩性)의 가치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무규범의 사회 지향

젠더 이데올로기는 진리, 책임, 자유 개념을 자유방임주의로 해석함으로써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설정해주신 참 진리와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자유로운 복종을 해체시키고 있다. 자기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일은 짐승의 행위이지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본능의 욕구를 규제 없이 행하는 것은 방종이다. 방종은 자유의 남용이요 타락이다. 남의 물건이 좋다고 소유자의 허락 없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은 도둑질이지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책임 있는 자유인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무질서를 낳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 병영 안에서 동료나 하급자들에게 항문 성교를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과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다. 군대 내 동성애는 군대 내 기강을 해이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균형법상 처벌받아야 할 금기사항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진리와 책임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자유’의 개념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무책임과 방종의 의미로 역기능화시키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틀을 인간 억압의 산물로 보아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과거에 해방신학이나 혁명신학이 사용했던 ‘해방’이나 ‘혁명’이라는 단어 대신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해방이란 자신의 생래적 본성인 생물학적 성(남성과 여성이라는 본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로서 여태까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

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시민사회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성 관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차별의 대우를 받은 것이지만 시민사회가 이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억압정책을 펼 것은 없다. 그것은 동성애는 일반 성폭력 형태의 사건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동성애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성소수자들로서 억압을 당해 왔다는 피해망상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해방이란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노예 제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의 생물학적 본성(남성과 여성)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은 본성의 거스름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인간성 부정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란 합리적 차별(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보수 차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별 대우 등)을 인정하는 자유 민주주의적 평등 개념인 상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아니다. 이들은 ‘무조건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다. 동성 간 성행위가 죄라고 할지라도 존귀한 인간이 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인 성행위와 무조건 동일하게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네오-마르크시즘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며 평등개념을 왜곡한다. 이러한 주장은 절대적 평등·결과적 평등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성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무조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란 그 가치판단이 종교적 판단이든 신적인 판단이든 가치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불평등이며, 억압이라는 평등 개념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존중하고자 하는 소수자 인권은 보편적으로 사회적 억압을 받는 소수자들(극빈자들, 소외층, 어린이들, 부녀자들, 노년층)이 아니라 오로지 동성애자

에 관련한 소수자들의 인권이다. 이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실천하는 성소수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 사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은밀한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이웃을 향하여 어떤 피해나 소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단속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본인이 커밍아웃하지 않을 경우 누구도 그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소행이 단체나 이웃들 사이에 불쾌감을 주고 공적 폐해(동성애 추행이나 동성애 성폭행)를 야기할 때 일반 성추행자나 성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동성애자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기들 소수자 권익을 지킨다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고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마르크시즘의 무신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배제한 채 휴머니즘 즉 인권, 평등, 평화, 소수자 인권보호 등의 개념을 왜곡되게 정립하여, 개념의 혼란을 조장하고, 이러한 혼란을 기반으로 이들이 원하는 무규범(Anomie)의 사회를 세우는 것이다.

전통적 규범의 결혼, 가정, 사회 제도 해체

네오-마르크시즘은 1960년대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종속이론, 남미의 해방신학 등과 연계하여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문화변혁이론으로 등장했다. 1960년 이후 서구사회는 인권의 가면을 쓰고 기존 사회에 문화변혁이론으로 등장한 네오-마르크시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소수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평등법 등이 통과되어 동성애 뿐 아니라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폐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를 멸시하고, 도전하고, 위협하는 포스트모던 인본주의의 또 하나의 다른 광경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동성애 법이 합법화 되었을 때 동성애자들은 2%밖에 안 되었고, 기독교인은 80%였다. 그런데 80%의 기독교인이 잠잠해서 영국 교회는 현재 빈사(瀕死) 상태에 있다. 과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했던 나치의 독재정부 시절, 독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도 대항하지 않고 잠잠했었다. 그 결과 나치주의는 독일과 그 주변국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재앙을 맞게 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도 관용이라는 미덕을 내세워 동성애 물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바마 정권의 동성애 합헌화에 손을 들었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수(유진 피터슨이 그 실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과 교회의 실패를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14%에서 35%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백인

청년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동성결혼 지지율이 약 절반에 가까운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에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은 오늘날 서구 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역차별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캐나다의 어떤 기독교대학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입장 때문에 주정부가 로스쿨을 허가해 주지 않아 법률가를 교육시킬 권리를 박탈당했다. 미국 텍사스 주의 휴스턴 시의 다섯 명의 목사들은 시당국으로부터 성 정체성이나 동성애에 대하여 언급했다는 이유로 설교, 연설, 신도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6세부터 실시되는 학교 교육에서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 일들은 현재 북미와 유럽 등의 이른바 선진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오늘날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유치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젠더 중립적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동성에 부부들이 입양한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결여되고 있다는 양성 부모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 유치원들은 유치원 아이들 사이에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에 강요되고 있다. 이들 동성애자들에게 비정상(abnormalcy)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동성애자들에게 남성과 여성이란 양성 인정이 ‘정상적’이라는 개념은 타부(the concept of normal is taboo)요, 이데올로기적 의심(ideological suspicion)에 부처지는 것이다.

서구사회의 동성에 물결은 서구교회의 세속화와 신학의 자유주의화에 기인한 것이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를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이 동성애가 위헌이라고 선언하기 전에 이미 미국의 공교회(PC USA, 연합감리교,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루터교 등)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에 성직자들을 안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며, 남녀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캐나다에서 소아성에도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므로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독일에서는 동물매춘과 인간매춘이 동일한 매춘가격으로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합의에 의한 부모 자식 간의 성관계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젠더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인권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과 반기독교정서가 팽배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성 차별 철폐운동의 영향력으로 인해 서구 사회에서는 부부와 가정의 성경적인 질서가 소위 케케묵은 가부장적 전통에 묶인 것으로 써 취급 받고, 그 가치가 의문시 되고 있는 반면, 가정적 생활공동체의 다양성은 인정받고, 선전되고 있다. 동성에 성향 가정의 다양성은 독일 개신교회(EKD)의 니콜라우스 슈나이더(Nikolaus Schneider) 의장에 의해 옹호되어 2013년 독일 개신교회에 의해 출판된 <가정 준칙(Familienpapier)>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정 준칙은 “자율성과 의존성 사이에서 가정을 신뢰할 만한 공동체로서 강화시킨다”고 하여 전통적 부부에 의한 가정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가정 준칙에서 전통적 가정과 부부 외에도 동성에 부부 등 다양한 생활공동체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제기된 모든 복음주의자들의 반박들이 지금까지 독일 개신교회(EKD)의 지도부로부터 냉담하게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성에 수용하는 교회에서 성경의 성차별 언어 해체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Genderismus)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 안에서 혹은 신학 안에서 미묘하고 정교하게 꾸며진 형태로 들어와 있다. 젠더주의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메시지에서, 성경 가르침에서, 또 주일예배와 같은 모든 예배분야에서 ‘포괄적인 언어’(동성애, 양성애, 혼합성애, 이성애, 트랜스젠더, 퀴어(LGBTQ) 등)를 도입하고자 한다. 젠더주의를 수용한 퀴어신학자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절대적 구분이 아니라 상대적 구분으로 보고 한 몸을 이룬다는

적인 번역판이 여권 운동주의자들의 주도 아래 만들어졌다. 심지어 이 번역판에서는 원문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칭호가 사용되는 것을 비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용어 ‘제자들’에 대하여는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 용어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여성 추종자들과 남성 추종자들이라고 풀어서 언급하고 있다. 기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남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 즉 ‘주여(Herr)’, ‘아버지(Vater)’, ‘선생님(Meister)’과 같은 호칭들이 기피되거나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젠더(사회적 성) 중심 세계관으로 폐쇄된 이데올로기

성 차별 철폐론(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을 깊이 살펴보면, 젠더 이데올로기가 현대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존엄성과 수치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이성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과 그리고 성경적으로 계

재법을 산출하도록 하는 폐쇄된 이데올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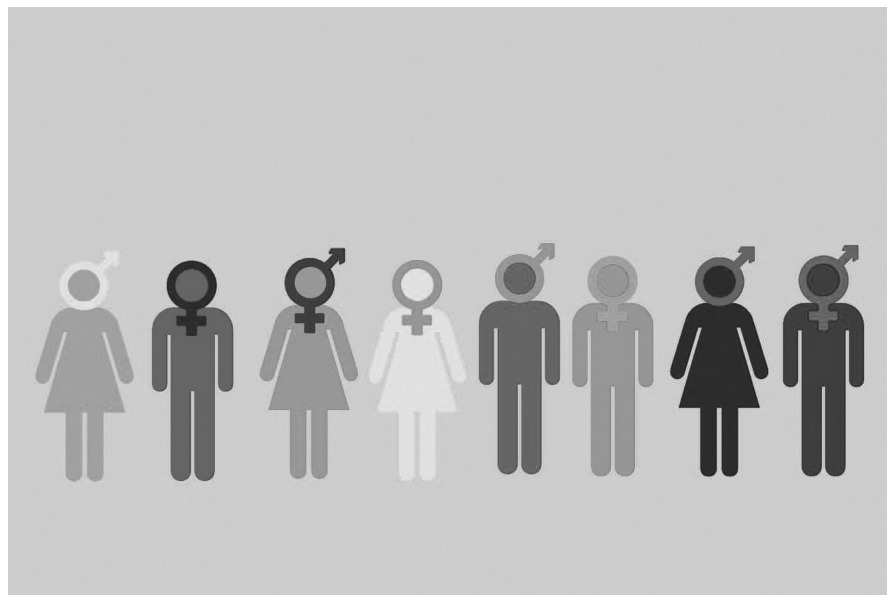
젠더 유토피아 추종 젠더를 인간 내면성의 구심점으로 정립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 발단과 전개과정에 있어서 절대성과 배타성을 요구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의 기본 형태를 따르고 있다. 마치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고안된 현대적 세계관과 같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자기들만의 내면 세계의 원칙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다. 그 원칙이란 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social sex)만 인정한다. 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후천적으로 자기의 성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사회 현실을 마르크스에게서 빌려온 유토피아적인 목적과 그 상응한 방법으로 총체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 ‘젠더’라는 사회적 성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성 혁명의 유토피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성에 대한 금기나 제한 없는 성적 쾌락으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에피쿠르스적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토피아라는 용어의 뜻(그리스어의 ‘없는(ou-), ‘장소(toppos)’의 연결어로서 ‘없는 장소’)처럼 이 세상에는 없는 처소이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이를 수 없는 것으로 망상에 불과하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의 내면세계의 원칙은 소위 말하는 젠더(Gender)이며 젠더를 그 구심점에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인류가 정신적,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사상적 물줄기의 중심과 그 역할을 젠더(Gender)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젠더라는 사회적 성으로 지배되는 인류학적 혁명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추구한 물질 중심으로 무산자 계급의 유토피아 환상을 젠더 중심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무산계급의 유토피아가 환상에 끝나자 프로이트를 빌려와서 인간의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성적 억압을 분출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문화적인 방식으로 사회 혁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전통과 규범을 존중하는 정신 운동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 전락될 뿐 아니라 그러한 정신 운동의 진리성과 생존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혐오하고 거부한다. 특별히 부부와 가족의 구성을 위해서, 그리고 집과 학교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표준이 되는 성경의 권리와 자격을 박탈한다. 이로 인해 기독교 서구 문화의 기초였던 기독교 진리가 성 차별 철폐론의 유토피아를 통해 젠더(Gender)로 대체,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만약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동성애 허용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립된 우리 사회는 본질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회 질서들이 해체됨으로 인해 큰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 이후에는 동성에 폭정이 뒤따르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계속)



성 차별 철폐론은 성에 대한 존엄성, 수치감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극단적으로 충돌한다.

가정의 질서가 창조 본연의 질서인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본문은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다(창 2:24)고 가르치고 있다. 퀴어신학(queer theology)은 이것을 부인한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창조질서는 남녀라는 짝으로 지어졌고, 암컷과 수컷으로 이루어지는 짝이 결합함으로써 생물학적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퀴어신학은 생물학적 성의 질서를 부인함으로써 영지주의적 몸(생물학적 성(性) 부인하고 사회적 심리적 성 인정)의 해석에 기울고 있다.

퀴어신학은 동성애를 성 소수자로서 부당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인권 차원에서 이들을 억압받는 자로 보고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동성애가 성중독이라는 질병(변태 성)이라는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 이는 성경본문의 원문 앞에서조차 그들은 이런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제목 아래 현대적, 중성

화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사상에 대한 수용성과 관용성을 요구하지만, 자기와 다른 사상과 도덕에 관해서는 지극히 배타적이고, 모든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열광적 저항과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금지법으로 역차별을 가하는 동성애 독재(homosexuality dictatorship)라는 성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계급투쟁론을 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수용과 관용을 요구하나,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유주의자들을 ‘부르조아들’이라고 매도하고 이를 증오하는 독단적 태도와 같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인권을 빌미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 독재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위장 하에 다수의 비판정신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

‘산마루교회 파송 희망자 모임’ 개최

19일 온누리교회 성도 산마루교회로 파송

온누리교회 성도를 산마루교회로 파송한다. 지난 11월 1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산마루교회 파송 희망자 모임’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파송 희망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이재훈 담임목사의 격려사, 이주연 목사의 환영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헌신을 결정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했다”면서 “산마루교회로의 파송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축복했고, 이주연 목사는 “산마루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산마루교회로 파송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예배, 식탁교제, 교회학



이주연 목사가 파송 희망자들에게 산마루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있다.

교, 영성수련, 사무와 행정, 이웃돕기(노숙인사역), 진부령공동체 등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산마루교회 파송식은 각 성인, 대학청년부 공동체에서 자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11월 19일에 진행

된다. 현재 80여명의 성도가 파송을 희망하고 있다. 산마루교회 파송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담당공동체 교역자나 리더십에게 문의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평택M센터 승합차 헌물 모집

몽골, 베트남예배 성도 교회 픽업용 차량

평택M센터에서 몽골예배와 베트남예배 성도들을 교회로 픽업하기 위한 승합차를 절실하게 찾고 있다. 현재 평택M센터에서는 몽골예배를 드리는 성도 30여 명을 교회로 픽업하고 있고, 베트남예배를 개척하기 위해서 인근 대학캠퍼스와 공장 등

지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다.

이광수 선교사(평택M센터)는 “승합차를 헌물해 주시면 이주민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문의: 010-6343-7588

CGNTV 드림온 콘서트 개최

CGNTV가 지난 11월 2일 오후 7시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드림온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드림온 콘서트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이용경 장로(CGNTV 대표), 정상건 장로(CGNTV 운영위원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

드림온 콘서트는 SDG양상블, 소프라노 신텔라의 공연, 토크쇼, 메시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인 CGNTV는 후원자들이 계시기에 운영이 가능했다”고 인사했다.

참석자 권주는 목사(구미국제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CGN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했다.

한동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초3~중3 학생 대상

‘2018 겨울 한동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camp.handongedu)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65만원(모든 제반 비용 포함)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19박20일 동안 한동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한동영어캠프는 다양한 교수법과 활동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학문으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언어로서의 영어를 체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한동영어캠프에서는 주요 과목을 영어로 배우며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국제학교식 수업, 직업군 체험 수업, 미션프로젝트 형식의 심화 수업, 승마, 양궁, 댄스, 스포츠, 공예 등의 야외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문의: 054-260-1991~3, camp@handongedu

포레버성가대 제6회 정기연주회

포레버성가대가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 깊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포레버성가대는 ‘주님의 얼굴 보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꿈꾸는 천국’

등 12곡을 합창할 예정이다. 홍우석과 서원태의 트럼펫 연주, 라보체 남성 4중창, 필그림 아카데미 기타 앙상블의 특순도 준비되어 있다.

포레버성가대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최고령 찬양합창단이다. 춘천교도소, 해외 비전교회 등지에서 찬양선교를 하고 있다. 문의: 010-5279-9454

온누리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온누리여성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온누리교회에 등록된 여성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연습은 격주 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

리교회 성가대실에서 진행한다.

온누리여성합창단은 지난해 창단되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 7부(9시에 드는 별)예배를 섬기고 있다. 문의: 010-2652-0785

오카야마 경제인 22명 한국 방문

일본 오카야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인 22명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3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과 19일 열린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행사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오카야마 교계는 대부분 미신자인 경제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러브소나타 오카야마가 끝난 후에도 CCF(Christian CEO Forum)와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자체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다.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용산노인복지관 참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26일(목)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제7회 용산구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경연 대회이다. 이번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에는 용산구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지에서 11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지역 주민들도 약 1천여 명 참석했다.

10월 양재세레자 명단

■ J4U 권해범 860805
한석호 880310
■ 여호수아 박태수 870723

송여나 891223
오성영 810210
정지원 900424
조희현 870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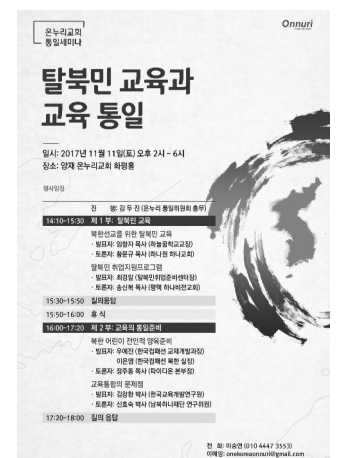
통일세미나 ‘탈북민 교육과 교육 통일’

11월 11일 오후 2시 양재 화평홀

지금 이 상태라면 탈북민들이 통일의 역군이 되고, 통일 이후 북한으로 건너가 아동을 교육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탈북민에 대한 교육과 통일 이후 준비가 그만큼 부족한 실정이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뜻 깊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탈북민 교육과 교육 통일’을 주제로 열리는 통일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11월 11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통일세미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 통일 이후 북한에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에 대해 논한다. 1부 ‘탈북민 교육’, 2부 ‘교육의 통일준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향자 목사(하늘꿈학교) ‘북한선교를 위한 탈북



민 교육’, 최경일 센터장(탈북민취업지원센터) ‘탈북민 취업지원프로그램’, 우예진 과장(한국컴페션) ‘북한 어린이 전인적 양육준비’, 김창환 박사(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통합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의: 010-4447-3553

/ 김영선 기자

크리스천 IT인들을 위한 ‘로그온’

11월 18일 오후 12시 양재 기쁨홀

스마트사역팀에서 크리스천 IT인들을 위한 예배포럼 ‘로그온’ 행사를 11월 18일 오후 12시 양재 기쁨홀에서 개최한다. 로그온 행사는 크리스천 IT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영성회복과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예배포럼이다.

이날 로그온 행사에서는 이재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이호수 사장(SK텔레콤), 박일환 집사(양천공동체)가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소속 된 성도 중에서 IT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www.elogon.net
문의: 02-3215-3237

■ 서빙고 파워웨이브 교사 간증



/ 박미 교사(서빙고 파워웨이브 3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

나는 서빙고 파워웨이브(중·고등부) 교사로 2년째 섬기고 있다. 내가 파워웨이브 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헌신이라기보다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였다. 파워웨이브 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유치부 교사로 10년 동안 섬기다 안식년 1년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하나님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중학교 시절 주일 학교 선생님을 보여주셨다. 사춘기 시절 만난 주일학교 선생님은 자상했고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 그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나갈 정도였다.

설렘 가득한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겠다는 소망이 커진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다. 그 아이들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예배드리고 있는데 매주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 나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면 사춘기의 아이들답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한번은 SNS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반응이 전혀 없었다. “애들 아 살아 있으면 점()이라도 한번 찍어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정말 점() 하나씩만 보내 주었다. 비록 점() 하나 뿐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연락이 온 것이 너무 기뻐서 하염없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

주일 공과시간만으로 아이들의 세상적인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교사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들의 중심에 예수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

처음 교사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했던 고백과 다짐들을 기억한다.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친절을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다.

서빙고 파워웨이브에는 끈끈함과 따뜻함이 있다. 아이들이 주말만 되면 빨리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는 좋은 공동체, 좋은 예배 분위기, 열정 있고 따뜻한 교사가 함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차세대가 하나님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큰 기쁨임을 아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 세례간증



/ 정은지 성도(영등포구로)

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고등학교 때 만난 한 친구다. 그 친구는 문제가 많은 나와 항상 함께해주었다. 나의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해 주었다. 사랑하고, 관계 맺는 방법과 삶에 대한 의지와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그 친구는 내게 하나님을 알려 주었다. 그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내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친구의 믿음과 하는 말들이 공감이 됐다.

자연스럽게 친구를 따라 온누리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공부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달라보였다. 이렇게 죄 많고 보잘 것 없는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는 사실이 놀

라웠다.

요단강가에서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하는 나의 모습과 강 한가운데서 손짓하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내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에 뛰어 들 수 있는 작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너의 수치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셨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다.

그날 이후 나의 소망이 바뀌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든든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도하시는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들을 나 역시도 마음껏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이 넘치고, 진실하고, 담대하고, 정의롭게 되기를 소망한다.

■ 은빛날개 세미나 수료 간증



/ 왕춘식 집사(북누리공동체)

인생 2막 준비하기

100세 시대가 시작되었다. 나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은빛날개 세미나를 신청했다. 은빛날개 세미나는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막연했던 나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노치형 목사님은 말씀과 강의를 통해 100세 시대가 도래될 것임을 알려주셨다. 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직 이후 제2의 인생을 맞이했을 때 알찬 삶을 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막연하게 인생 2막을 맞이했다면 인생 끝자락에서 정말 후회할 뻔 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방법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대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 하고는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고자 한다.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이다. 나는 오랜 시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지쳐있었다. 퇴직하면 그냥 쉬고 싶었다. 그런데 10년 전 어린 이부터 어르신까지 소외계층을 만나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어려운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5

년 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다. 그런데 생각뿐이었다. 이번 은빛날개 세미나를 들으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식품지원 복지서비스 단체다.

은빛날개 세미나에서 노령인구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었던 강의가 기억에 남는다. 이번 세미나는 당장 작은 것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은빛날개 세미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은빛날개 세미나를 만나게 하시고 인생 2막을 준비하게 하셨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은빛날개 세미나를 통해 진정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은빛날개 세미나 개강
일시: 11월 7일~11월 28일
장소: 서빙고 홍보관
문의: 02-3215-3436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훈련 수료 간증



/ 최소미 성도(성동광진공동체)

만남 그리고 변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성령님을 영접했다고 믿고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르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아닌 나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삶에 변화가 없었다. 평온한 마음도 내 의지로 인한 것이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말씀을 읽는 것이 숙제 같았다. 그러던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훈련 강의를 듣게 되었다. 첫 강의 때 교재를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두신 강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나는 지난해 가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다. 그때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강의를 신청하기 전이었다. 그러고 나서 신청한 이번 훈련을 통해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껏 내안에 있는 이성의 틀로 나를 정의해왔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얽매어 도덕적 사회질서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 끊임없이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훈련에 참석하면서 자유로워졌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으며, 그로 인해 나는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 안에 감히 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예전과 다르게 살고 있다. 전에는 내 의지로 감정과 행동을 표출했다면 지금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훈련을 새로운 접근 방식의 강의였다.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다. 매 순간 내 자신의 본질과 대면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더 이상 물러섬 없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EHS(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훈련
일정: 11월 8일~12월 27일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2-3215-3532

장로칼럼

남양주 창립 13주년을 맞으며

홍중철 장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걸어온 13년의 발자국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시간들이었다.

미국 뉴욕 총영사관에서 귀국 후 남양주의 물안개 피어오르는 한강변으로 이사를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서빙고 2부 주사랑찬양팀과, 새가족, 만남의잔치사역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 목사님 비서실에서 남양주 기도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2003년 신록의 계절 5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재훈 목사님을 모시고 남양주 온누리기도처가 시작되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매일 <생명의 삶>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으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나눴다. 가슴과 가슴으로 어우러지는 은혜와 사랑의 교제였다.

기도처를 섬겼던 초대 이재훈 목사님에 이어 작은 거인 이기훈 목사님이 1대 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목사로 계실 때 운영위원회 총무로 섬기던 홍헌표 집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했던 가슴 아픈 기억은 아직도 나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당시 이기훈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세계를 또 한 손에는 이웃을” 품고 하나님에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가는 교회를 목표로 지역 사회를 위한 긍휼·선교 사역에 힘썼다.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강조하신 구호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

의 마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었다. 또한 유명을 달리하신 피현희 목사님과 함께 했던 새가족 사역, 하심탐사, 투게더맞춤전도집회, 해외 아웃리치 등 수많은 사역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남양주를 폭발적으로 부흥·발전시킨 2대, 안광복 목사님(현 총북청주상당교회)도 잊을 수 없다. 2006년 9월 안 목사님 취임 후 각 사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강한 교회의 주춧돌을 세우는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진행했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3대 이기진 목사님은 양적성장을 지명할 양적성숙에 집중했다. 이 무렵 성령집회 ‘Heavenly Touch’, ‘중보기도학교’ 등이 시작되었다.

4대 백상욱 목사님은 2010년 중국 단둥에서 귀국해서 2014년 12월까지 가장 오랜 기간 담당하셨다. 이때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2개 공동체(구리, 남양주), 10개 다락방, 44개 순으로 개편했다.

지금 5대 안광국 목사님은 2014년 세모에 취임하셨다. 성인공동체를 A(Ace), B(Best), C(Center) 권역으로 나누었고, 총 11개 다락방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신축해서 이전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명실공히 남양주 전 지역과 포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북서울 지역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남양주 지역은 전체 인구의 약 30%가 차세대다. 한국 교회의 미래인 차세대들이 가득한 곳이다. 나그네인 외국인근로자와 탈북민들도 많다.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품으면서 Acts29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e best is not yet to come(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권사칼럼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원현숙 권사
(중종로공동체)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을 섬긴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일대일 제자양육 담당 목사님도 여러 번 바뀌었고, 새신자교육 과정 5주차에 일대일 양육자와 연결하는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나는 10여 년 전 금경연, 이종실 목사님 부부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다. 목사님 두 분은 말씀과 언행이 일치되는 분이셨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을 실천하셨고, 삶이 예배가 되는 분들이셨다. 늘 우리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 일을 빼놓지 않으셨다. 목사님 부부의 관심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영향으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만났던 동반자들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한 자매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던 때가 기억난다. 직접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일대일 제자양육이 이루어졌다. 의사소통이 아쉬웠지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었다. 그 자매와의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피곤할 법도 했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피곤하지 않았다. 동반자와 나는 영혼을 살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했다.

사실 그 자매는 성경을 10번이나 읽었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그런 자매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동반자의 표정과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비단 그 자매뿐만이 아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이후 동반자들이 말씀으로 삶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반복할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고후 6:10).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딤후 2:2).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이 말씀이 실천되고,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본다. 일대일 양육자들이 각자의 사역과 공동체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다. 특히 밤낮 없이 전국과 세계 곳곳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사역하는 일대일 대외사역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들의 헌신이 여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의 핵심역량이다. 많은 성도들이 긍지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을 해나가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 양육자들이 말씀 안에서 먼저 깨어있어야 한다. 역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동반자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양육자들이 계속 세워질 것이다.

신앙에세이

권용갑 목사
(세계관학교 담당)

세계관은 인간이 사물을 보는 관점을 말한다. 타인과 관계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것도 세계관이다. 따라서 관찰하는 실재가 한 가지 물건일 때도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궁극적 실재, 우주나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등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1988년 미국의 조지 바나 연구소는 미국 기독교인들의 삶이 기독교 신앙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기독교인 23%, 비기독교인 27%가 로또를 샀고, 기독교인 69%, 비기독교인 68%가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우울증 치료제 복용은 기독교인 7%, 비기독교인 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기

독교인의 지역사회 참여도(37%), 사회기부(47%), 불우 이웃 돕기(24%)는 비기독교인의 지역사회 참여도(42%), 사회기부(48%), 불우 이웃 돕기(34%)보다 낮았다. 반면 이혼율은 기독교인이 4% 높았다. 이 결과는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임스 사이어는 세계관이 “신념, 곧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며 실재의 근본적인 구조에 관해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narrative)”라고 했다. 이처럼 세계관은 이성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형성되어 있다. 세계관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결정되는 이유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관을 공부해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 있다. 다른 세계관과의 차이도 잘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한다. 신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연구해서 보여준다면, 세계관운동은 그것을 토대로 삶과 세계에 대해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따라서 세계관운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이다.

미국 기독교인들의 세속적인 세계관처럼 우리나라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유교, 불교, 도교, 무속, 동양 철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적 세계관은 서구의 모더니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고, 소비주의와 과학주의가 하나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세계관은 부(富)와 물질을 소유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물질을 절대시하고, 욕구충족이 구원의 핵심내용이라고 여긴다. 사실상 물질만능주의는 세속종교가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삶에 엄청난 진보

가 일어났다. 그만큼 과학과 이성의 힘을 통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도 커지고 있다. 과학을 구원의 한 형태로 여기는 과학의 종교화가 만연해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취향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복음은 공적 광장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성경의 권위운은 범주를 혼동하는 일로 여기게 되었다. 과학과 종교가 대립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은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기독교 세계관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돌아본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여러 문제들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목표다.

세계관학교 개강

일정: 11월 15일~12월 6일 매주 수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
문의: 02-3215-3661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7~8절).

마지막 때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기도, 육체의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삶과 깨어 있는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뛰어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 넘는 기도, 때로는 우리 가정을 뛰어 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깨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위험이 많습니다. 깨어 있는 기도는 어찌면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시대의 문제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 영혼들을 위해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만 편안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 넘어 다음세대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아직 어두울 때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은 어둠 속에서 옷을 입지만 곧 햇빛 아래서 옷을 입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깨어 있는 기도는 깊은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시키고, 법전을 많이 만들고, 제도를 정교하게 강

화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 이웃의 죄를 품고 용서하고, 나누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는 기도와 깊이 있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삶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9~11절).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는 삶이 무엇일까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너무 다릅니다. 진정 내가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타이틀을 따라 섬기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길 때 가졌던 수건을 가지고 섬기는지입니다. 타이틀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타이틀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나는 어떤 힘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위한 고난을 행사하는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은인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지 아니

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기억해 줘도 아무렇지 않게 섬길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내가 잊혀도 조금도 섭섭하지 않는 섬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이틀이 없어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만 섬길 때는 늘 섭섭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사랑, 선한 청지기의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쉬움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낌없이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에도 우리의 남은 때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길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생각해봅시다



백혁 센터장
(청파노인복지센터)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1인 세대까지 등장했다. ‘1인 세대’ 혹은 ‘1인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다.

2017년 6월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청파노인복지센터가 있는 용산구 청파동만 하더라도 전체 10,676세대 중에서 5,901세대(55.2%)가 1인 세대이다. 거리를 걷다가 만나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혼자 산다는 것이다.

낙엽 쌓인 가을의 낭만이 어느새 옷깃을 세우는 겨울이 되려고 한다. 겨울은 젊은 1인 세대에게도 힘들지만 찾아오는 이 없고, 정 붙일 곳도 없는 독거어르신들에게는 쓸쓸한 계절이다.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식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소외감을 예방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말벗 활동이다.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

들이 독거 어르신들의 댁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만남을 이어가면 겉겹이 쌓아두었던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된다. 좋은 동생과 형님 사이로 발전해서 날이 좋을 때는 함께 나들이도 가고,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수박도 함께 나눠 먹기도 한다.



둘째,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 매일 도시락과 밀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때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손쉬운 요리방법을 전수해주시기도 한다. 독거 어르신들은 단순히 도시락이나 밀반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다.

나눔과 봉사 그리고 사랑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 활동이 독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일상이 되고 있다.

봉사자 어르신들은 “작은 나눔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하니 정말 뿌듯하다”면서 흡족해 하신다. 청파노

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모여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이웃들을 밝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눔과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고민만 하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아닐까? 가끔 이웃들에게 손 내밀고 작은 응원을 하면서 행복을 전했으면 좋겠다.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봉사도 좋고,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기부도 좋다. 특별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게 지나가는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나눔이 삶에 가득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 겨울에는 주변에 혼자 사는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하게 섬겨보자.

문의: 청파노인복지센터 02-703-6011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02-794-610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02-3407-2700
온누리요양센터 031-334-9090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리온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차세대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본관 5층 미션다락방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Peace 302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 / 네팔

어 주일 9:00 302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8-9

김포 M센터 물품 모집

모집: 냉난방기 2대, 신디사이저, 김치냉장고

문의: 010-7762-7718

한국어선교학교 제3기 수강생 모집

일시: 12월 2일~2018년 2월 3일 매주 토

후 5시30분~오후9시)

장소: 온누리교회 도곡캠퍼스 온유희(도곡

동 숙명여고 교육관2층)

문의: 차준근 팀장(010-3290-4506)

54기 내적치유학교

일시: 12/1(금)~3(주일) 1박2일

장소: 양지 비전빌리지

문의: 010-2596-1014

안산 온누리M센터 송합차 기부 요청

문의: 이익식 집사(010-3708-7926)

CMN마노아팀 봉사자 모집

일시: 11월 19일 오후 1시 서빙고 출발

장소: 동두천 아프리카 공동체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더멋진세상 장단기 선교사 모집

국가: 세네갈, 르완다, 스리랑카, 인도네시

아, 요르단

사역: 교육, 보건, 농업, 난민, 행정

지원: 11월 27일까지 서류 접수

문의: 오정민 PM(02-2271-2246)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희(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제1170호 | 2017년 11월 5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8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코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로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0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동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이훈 목사

-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성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광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를랜드
유원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t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DA DAIA-
MOND 2F
- 고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7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S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롄징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당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준민 서경남
노지형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일영 권영환
권오환 권영길 김관수
김도일 김도훈 김성욱
김소리 김성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승민
김유식 김재성 김경숙 김찬호
김경희 김현아 김홍호 노규석
김태웅 량문홍 마이클 문영재
노희태 박성근 박성CB 박우열
박성현 박세웅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배행삼 변대선 서승호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철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진 오민
오은규 우영삼 원유정 윤길중
유성현 유수원 이기원 이기훈
이길타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서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외혜영
이찬우 이해영 임용선 외혜영
전신의 전재표 전홍현 정상훈
정성훈 정영규 정재택 정현서
정영권 조동욱 조보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이준호
차명권 최희민 최희성 최승수
차용준 최현진 채기성 한희수
홍기환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 ◆전도사(전임)
김지영 김혜영 김은영 김재승
김진아 문장원 박승훈 백인규

- 유승현 윤현규 이강현 이우람
이종현 이준인 임경현 정한효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박이호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강은혜 박상학 김성수 김지배
김종영 김장성 김상수 김성욱
김재성 김경숙 김승완 김승훈
김유식 김재성 김경숙 김찬호
김경희 김현아 김홍호 노규석
김태웅 량문홍 마이클 문영재
노희태 박성근 박성CB 박우열
박성현 박세웅 박승훈 박윤현
박철웅 배행삼 변대선 서승호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철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진 오민
오은규 우영삼 원유정 윤길중
유성현 유수원 이기원 이기훈
이길타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서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외혜영
이찬우 이해영 임용선 외혜영
전신의 전재표 전홍현 정상훈
정성훈 정영규 정재택 정현서
정영권 조동욱 조보훈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이준호
차명권 최희민 최희성 최승수
차용준 최현진 채기성 한희수
홍기환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 최대홍 최재원 최정현 최준원 최영은
최재원 최정현 최준원 최영은
최재원 최정현 최준원 최영은
최재원 최정현 최준원 최영은
- ◆사역장로
강인지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신태 김성준 김수광 김수웅
김수영 김원중 김용성 김원성
김이곤 김인화 김종진 김종성
김중승 김주홍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보 김현철 노재환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승운 박영태 박찬빈 배종수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일선
송유진 송재길 송창도 신민진
신우권 안국영 양재하 염대진
오성연 안국영 원우현 유원준
유재현 윤성현 윤영진 윤지준
이강범 이진재 이국주 이두송
이영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욱
이영철 이영철 이육연 이숙연
이종진 이우환 이종환 이재준
이종진 이우환 이종환 이재준
정강무 정동영 정보원 정순봉
정영열 정유재 정용화 정태근
정재현 정영석 권오승 권오현
조환진 조주상 차승철
최진수 최명 하영철 하용기
최희영 피터엘디 하영철 하용기

- 김명중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김병국
-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호 강신의 강영재
강영중 강인식 강현석 강철호
고건 고대아 고영주 권오현
권대환 권영석 권오승 권오현
권용성 권용환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도영
김기영 김관근 김남식 김만수
김동원 김두진 김만수 김병세

- 이태열 이한규 이희주 이종일
이희창 장 광 장경문 장정식
장규영 장규영 장규영 장규영
장대서 정봉호 정봉호 정봉호
정영주 정영태 정영태 정영태
정진하 정진하 정진하 정진하
정하영 정하영 정하영 정하영
조성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현
주재환 주재환 주재환 주재환
최도성 최도성 최도성 최도성
최성민 최성민 최성민 최성민
최성민 최성민 최성민 최성민

- 이태환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이흥선
- ◆명예장로
마용환 문대준 박동순 양원명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이영환
장용환 장용환 장용환 장용환
최종훈 최종훈 최종훈 최종훈

- 조익현 채미현 최지선 최지선
최지선 최지선 최지선 최지선
최지선 최지선 최지선 최지선
- ◆반주자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김기아

- 홍동욱 홍성훈 홍세만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 ◆전도사
강찬호 강정환 김사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성진
김정국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배혜림 마커스
문하나 박우리 박종구 박지혜
박주하 박한진 박한얼 박현욱
배윤호 배윤호 배윤호 배윤호
서민표 서재훈 서재훈 서민경
손주은 송준현 신기원 안지현
이수연 이은희 이재정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지은
장재홍 지재홍 지재홍 지재홍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조 단
최영민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하보라 코바야시 메구 기지마
에미코 헨슨 Christine Shin
JeanaLee David Kim
Jonathan Kim Jeff Yoo
Tommie Njobvu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마크최 문봉주 이영선
심상현 서현 유원록 정재욱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정재욱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타마 미키

◆미주OMA담당목사

- 김형철 박재영 사재범 이성권
이정엽 이종재

◆부목사

- 강일하 권오광 권희경 금동선
김도일 김미정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성중 김재형 김인숙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대일
박신용 박수환 박주영 방지남
배성우 배인호 서성광 엄영기
여필봉 유동우 이경성 이필호
이성훈 이세영 이영표 이영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선 전상훈
전현규 전홍현 정동훈 정용환
정호성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대웅 최영진 최정무 허 민

광고

- 한마음 예배 정신건강 특강
일시: 11월 19일 오후 12시
장소: 트리니티 304호
주제: 정신질환의 회복을 말한다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기독교 상담학, 신약학 교수
접수: 11월 13일~20일 17:00까지
문의: 02-570-7381
자세한 사항은 www.tiguackr 참조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불학기 신입생 모집
원사접수: 11월 22일까지
문의: 02-570-7375
자세한 사항은 www.tiguackr 참조

온누리신문

-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장국
편집부장: 김남근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바이올린 레슨
및 노트북후원 모집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게목적 및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김다솜 사회복지사(3407-2747)
- 시립용산노년종합복지관 무료 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55세 이상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아력사, 사진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김다희 사회복지사(796-7665)
-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사제니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0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소미 사회복지사(070-4340-2599)
- 번동코아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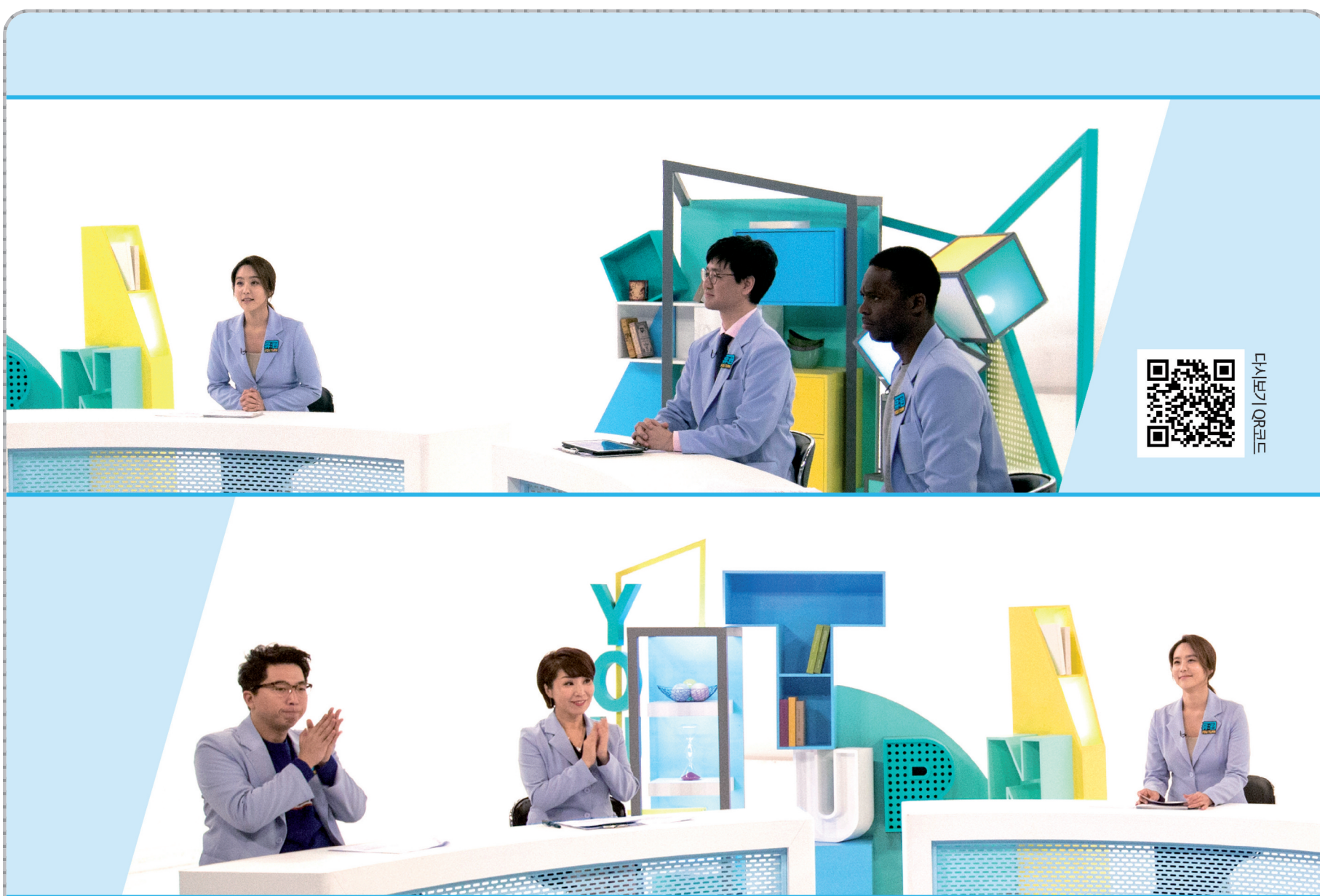
-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의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문의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청,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키시예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부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안원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뮤니티지원본부)
상담접수: 570-7536-7(6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 선 · 광 고

- 결혼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서빙고 분당
이우상, 안미숙(신용산교회) 집사, 권사의 아들 이태대(신용산교회)
김성윤, 유계숙(평화교회) 성도, 집사의 딸 김아진(온누리교회)
-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00 양재 사랑들
이재성, 장은숙(로고스예배시교회) 성도, 집사의 아들 이광현(온누리교회)
정점현, 박정임(제주 열매맺는교회) 성도, 집사의 딸 정윤정(온누리교회)
-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00 양재 사랑들
이태정, 윤혜정(새소망교회)의 아들 이영진(온누리교회)
강장식, 최영자(정주온누리교회)의 딸 강윤미(구의교회)
- 소 선
10/27(금) 동작 이관우 집사 모친상, 유의실 권사 시모상 고 유영선
10/27(금) 분당B공동체 임신빈 집사 모친상 고 김명일
10/28(토) 서초C공동체 김경은 집사 시모상 고 석윤희
10/28(토) 여의도 김수영 장로 빙모상 고 황지순
10/31(화) 영동포구로 고영국 형제 모친상 고 하미자
11/1(수) 송파공동체 서영란 성도 부친상 고 부친상 고 임준환
11/2(목) 브릿지33플러스공동체 백창훈 성도 모친상 고 김하순
11/2(목) 이수 이현숙 성도 부친상 고 박성태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YOU:TURN

크리스천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고민들
말씀으로 돌아가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

MC : 아나운서 박지윤 패널 : 교수 이호선, 개그맨 정범균, 방송인 프랭크 이마니
게스트 : 목사 한기채, 서정오, 주석현

11월, 유턴이 준비한 고민 솔루션



이 학생들은 왜 모여있을까요?

2017년 11월 7일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가 무서워요>편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과
대화 시작하기



집에서는
늘 '빨리 빨리'
바쁜 엄마

2017년 11월 14일

<워킹맘은 괴로워>편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워킹맘 이해하기



가족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2017년 11월 21일

<가족을 용서하고 싶어요>편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방법



2017년 11월 28일

<꼭 꿈이 있어야 하나요?>편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들의 감춰진 속마음은?